

서평 『손양원의 옥중서신』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환호

옥중서신은 많은 문서들 가운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감옥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색을 통해 끌어올린 주옥같은 생각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해 낸 것이기에 당사자가 써 낸 어떤 문서나 진술보다 값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앙을 위해 감옥에 들어간 영성가들의 옥중서간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비롯하여 존 번연이나 디트리히 본회퍼와 같은 사상가들의 중요한 생각들이 옥중에서 탄생했다. 우리 땅, 우리 시대에도 정약용, 신영복, 문익환, 고영근, 김대중 등 신념 때문에 감옥 또는 유배생활을 했던 많은 인물들의 편지가 책으로 간행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손양원의 옥중서신」은 순교자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의 이사장인 이성희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글을 “깊은 신앙과 고결한 삶, 그리고 순교정신이 묻어있는 고백록”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글이며, 순교를 넘어 영원한 삶을 고백하는 예언”이라고 하였다. 그의 고백록은 희망을 노래하고 영원을 예언하는 환호성이지만 그것이 깊은 감옥에서 들려오는 것이기에 더욱 진실되고 아름답다.

손양원 목사는 당시 조선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던 나환자들을 위하여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신사참배 거부로 수감되어 술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순교의 문턱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풀려났다. 해방의 혼란한 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폭도에게 살해당하는 비운을 겪었지만 아홉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살해주동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양아들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앙의 금자탑을 쌓았



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동족상잔의 전쟁 와중에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였다.

그의 생애와 관련된 책들이 이미 전기, 사진집, 설교집, 증언문, 동화, 만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왔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옥중서신에는 각색되지 않은 손양원의 존재를 실제로 만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 책의 1부에서는 1941년에서 1945년 7월까지 가족과 교인들이 보낸 편지와 손 목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낱자를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현대 국어로 번역, 윤문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자세한 해제를 붙여 그 시대적 정황과 주변관계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게 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친필편지 사진과 그것을 활자화한 원문의 쪽수를 각 편지 상단 우편에 적어 놓아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자를 잘 모르거나 근대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해 놓았다. 성인의 정갈하고 반듯한 친필 글씨를 책의 표지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엽서와 편지글을 통하여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인의 서고에 한 권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1940년 9월 25일 밤 9시에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에 석방될 때까지 5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지냈다. 종교적 신념이 죄가 되었으니 그의 신앙적 이념과 사상적 신념을 자유롭게 편지로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계속되는 검열과 회유의 과정에서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편지는 검은 색으로 지워진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편지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영어생활의 고통에 대하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에 교도관의 친절과 보호를 표현하는 편지들은 많다. 안부를 묻거나 알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 등, 극히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편지들도 많이 보인다. 심지어 그는 “이후부터 편지할 때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과 신앙과 관련된 말은 피하도록 하고 다만 안부와 소식 그리고 모든 형편과 사정만 알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다(70쪽). 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손 목사의 신앙과 가치관을 아주 선명하게 읽게 된다. 먼저 독자들은 이 서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유장훈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이자 포항 청하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사 학위(B.Th.)를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사회복지학석사(MSW)를,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향한 감사, 기쁨, 은혜, 평안, 믿음과 같은 영적인 보물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1943년 5월 17일 만기출소 일을 맞이하였을 때다. 아내와 자녀들은 옥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석방 시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고 있었지만 손 목사는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갑자기 석방이 취소되고 오히려 무기구금형이 언도되었다. 그는 분명히 큰 절망을 경험했지만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遠離本家入獄中 /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夜深獄深滿愁深 /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夜深獄深人愁深 /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니

與主同居恒喜滿 /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후략)

그에게는 감옥도, 추위와 굶주림도, 병환과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스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며 기뻐하라고 충고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손양원 목사는 이 편지들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누이 양선에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욕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욕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62~63쪽)”고 하였다. 그에게 감옥은 “배우고 은혜 받는 것도 적잖이 많으니 범사에 다 감사할 뿐(63쪽)”인 삶의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앙의 비밀은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능했다. 편지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안

심하며,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가장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 부존재가 경험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존재를 드러내신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다. 손 목사에게 있어서 감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 그의 편지들은 이러한 십자가 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을 편지로 담아 내고 있다. 악과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력을 다해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주문한다. 그 피 흘림은 사랑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여 흘리는 피다.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향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마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해 버린 것 같은 현대 교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삶에 경종을 울린다. 거룩을 향한 그의 몸부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손양원 목사의 편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는 인간의 정과 욕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일제와 공산군이 휘두르는 포악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극한 가난과 영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여유를 가졌고 만족했다. 그 자유로움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진리는 모든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이 비추면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처럼 그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선택하고 실천하

면서 주장했다. 그는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밝고 확실한 진리의 세계를 힘차게 걸 어간 것이다.

동시에 그의 편지에는 부친과 가족, 성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끊어 넘친다. 손양원 목사의 편지 들에는 진정한 가족 사랑의 모범과 사랑의 목자 로서의 표상이 보인다. 손 목사는 자신의 신앙적 선택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에 한편 미안해 하였지만 사실은 늘 당당하고 늙 림했다. 절대로 형벌 당하는 그의 삶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죄를 멀리할 것과 믿음으로 견고해질 것을 훈계하고 있다. 그가 감 옥에 끌려간 이후 부친은 만주로, 아내는 식모살 이로 아들들은 공장으로 더 어린 동생들은 고아 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어찌 보면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이다. 교인들도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 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편지들은 주변 사람들 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깊어 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 에 앞서 가족을 돌보라고 권면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돌봄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손 양원 목사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 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를 바침으로써 효성 스러운 아들이요 공경받는 아버지요 고임을 받는 지아비, 더 나아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가족을 위한 연민과 사랑의 애가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 도가 계속된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제 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손 목사도 아버님을 걱정한다. 자식에게 쓰는 편지에도, 아내에게 쓰 는 편지에도 아버님에 대한 봉양을 계속 부탁하 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해체되어 가는 현대 가족 의 문제에 손양원의 마음가짐이 마치 등불과 같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한다.

손양원 목사의 서간집은 또한 그 시대적 정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일본제국의 억압과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참상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 이다.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 만주와 해외로 흩어 져 가는 이민현상과 그 시대의 정보전달과정도 발견된다. 감옥 생활과 감옥 바깥의 들레사람들 이 주고받는 네트워크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언 어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양상도 엿볼 수 있다. 또 최권능, 주기철, 김인서 등 한국 교회사에 우뚝 솟은 영적 거성들과의 관 계도 흥미롭다. 역시 영적 거장들은 그렇게 서로 통하고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극심한 검열 때문인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이나 진리에 대한 논의가 별로 보 이지 않는다 점이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인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 이 더 중요한 영적 교훈과 모범이 되고 있다. 또 하나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유교적 도덕을 배타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삶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손 목사는 “큰 성인 공자(69쪽)” 라는 표현을 할 뿐 아니라 삼강오륜의 예절과 도 의를 존중하도록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 는 도그마에 얽매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지시하신 자연의 섭리와 보편적 진리를 따 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도인이요 성인이라고 말 하고 싶다. 